

올바른 카펫 손질 요령

청소기 사용시에는 카펫을 계속 두들겨주면서 먼지나 이물질을 잘 흡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카펫에 붙은 머리카락은 테이프를 손에 감아 두드리듯 떼어내거나 고무장갑을 끼고 문지른 다음 청소기로 빨아낸다.

바람이 잘 통하는 맑은 날을 택해 2~3시간 실내통풍을 시키도록 한다. 가구에 눌린 자국이 남아 있을 때는 순모제품일 경우 증기 다리미로 납작해진 부분의 털을 일으켜 세운다. 합섬이나 혼방은 섬유린스를 물에 타서 바른 뒤 증기다리미로 살살 문질러 다린다. 버터나 드레싱 같은 기름기가 묻었을 때는 벤젠으로 닦거나 기름제 거용 세제를 이용하고 혈액, 커피는 냉수와 효소세제, 잉크, 소변, 토물은 온수와 효소세제, 콜라, 술, 초콜릿은 온수와 샴푸, 차는 온수와 식초로 제거한다.

검이 늘어붙었을 때는 검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강 떼어낸 후 찌꺼기를 얼음으로 딱딱하게 얼려 솔로 털어내면 가루상태로 떨어진다. 양초도 마찬가지이다. 액체상태의 이물질은 티슈나 타월을 이용해 물기를 빨아내는 것이 우선이며, 닦아낼 때는 언제나 바깥쪽에서 카펫의 결을 따라 문지른다. 카펫의 결과 다른 방향으로 문지르면 오히려 얼룩이 번지는데 이것이 더 지워지지 않는다. 처리 후 그냥 말리게 되면 쪼그라들 염려가 있으므로 티슈를 여러 겹 카펫 위에 깔고 그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은 상태로 건조시킨다.

① 짓눌린 흔적 : 가구로 인하여 움푹 들어간 자국은 카펫이 순모일 경우, 스팀 다리미를 사용한다. 이때 다리미는 카펫 위에 직접 올려놓지 말고 카펫 위에 살짝 띄워서 사용한다. 물에 적신 천을 댔다가 브러시로 세워 올려 골고루 퍼줘도 된다. 카펫이 합섬, 혼방일 경우에는 세탁용 유연제를 물에 희석하여 바르고 스팀다리미를 카펫 위에 살짝 띄워서 고루 편다.

② 늘어붙은 부분 : 뜨거운 냄비 등을 놓아 늘어붙은 부분은 쇠수세미로 가볍게 문질러 굳은 것을 떼어내고 거즈에 옥시돌(oxydol, 3% 과산화수소 수용액)을 묻혀 닦는다.

③ 빛 바랜 부분 : 직사광선을 받아 원래 색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옥시돌을 묻힌 걸레로 조심스럽게 닦아준다.

④ 흐트러진 올 : 빠져 나와 있으면 잡아당기지 말고 가위로 잘라준다.